

[성주간] 성지주일 수난복음 나해(짧은 복음)

마르 15, 1 - 39



마 르코 가 전 한 우 리 주 예 수 그리스도 의 수 난 기 입 니 다.



아 침 이 되 자 수 석 사 제 들 은 곧 바 로 원 로 들 과 율 법 학 자 들,



곧 온 최 고 의 회 와 의 논 한 끝 에, 예 수 님 을 결 박 하 여 끌 고 가 서



빌 라 도 에 게 넘 겼 다. 빌 라 도 가 예 수 님 께 물 었 다.



["당 신 이 유 다 인 들 의 임 금 이 오?"] 예 수 님 께 서 대 답 하 셴 다.



["네 가 그 령 게 말 하 고 있 다."] 그 러 자 수 석 사 제 들 이 여 러 가 지 로



예 수 님 을 고 소 하 였 다. 빌 라 도 가 다 시 예 수 님 께 물 었 다.



["당 신 은 아 무 대 답 도 하 지 않 소? 보 시 오. 저 들 이 당 신 을 갖 가



지 로 고 소 하 고 있 지 않 소?"] 예 수 님 께 서 는 더 이 상 아 무 대 답 도 하

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빌라도는

축제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 주곤

하였다. 마침바라빠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 때에 살인을 저지른

반란군들과 함께 감옥에 있었다. 그래서 군중은 올라가

자기들이 해오던 대로 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하였다.

(다른사람)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유대인들의 임금을 풀어 주

(해설자)
기를 바라는 것이요?"] 빌라도는 수석 사제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겼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수석 사제들은 군중을 부추겨 그분이 아니라 바라빠를





으 로 끌 고 갔 다. 그 곳 은 총 독 관 저 였 다. 그 들 은 온 부 대



를 집 합 시 킨 다 음, 그 분 께 자 주 색 옷 을 입 히 고 가 시 관 을



워 어 머 리 에 씌 우 고 서 는, 이 렇 게 말 하 며 인 사 하 기 시 작



하 였 다. ["유 다 인 들 의 임 금 님, 만 세!"] 또 갈 대 로 그 분 의



머 리 를 때 리 고 침 을 빨 고 서 는, 무 릎 을 꿇 고 옆 드 려 예 수



님 께 절 하 였 다. 그 렇 게 예 수 님 을 조 롱 하 고 나 서 자 주



색 옷 을 벗 기 고 그 분 의 겹 옷 을 입 혔 다. 그 리 고 예 수 님 을



십 자 가 에 못 박 으 러 끌 고 나 갔 다. 그 들 은 지 나 가 는 어 떤



사 람 에 게 강 제 로 예 수 님 의 십 자 가 를 지 게 하 였 다.



그 는 키 레 네 사 람 시 몬 으 로 서 알 렉 산 드 로 스 와 루 포 스 의



아 버 지 였 는 데, 시 골 에 서 올 라 오 는 길 이 었 다. 그 들 은 예



수 님 을 골 고 타 라 는 곳 으 로 데 리 고 갔 다. 이 는 번 역 하 면



'해 골 터' 라 는 뜻 이 다. 그 들 이 몰 약 을 탄 포 도 주 를 예 수 님



께 건 냈 지 만 그 분 께 서 는 받 지 않 으 셸 다. 그 들 은 예 수



님 을 십 자 가 에 못 박 았 다. 그 러 고 나 서 그 분 의 겉 옷 을 나



누 어 가 졌 는 데 누 가 무 엇 을 차 지 할 지 제 비 를 뽑 아 결 정



하 였 다. 그 들 이 예 수 님 을 십 자 가 에 못 박 은 때 는 아 침



아 홉 시 었 다. 그 분 의 죄 명 패 에 는 '유 다 인 들 의 임 금' 이



라 고 쓰 여 있 었 다. 그 들 은 예 수 님 과 함 께 강 도 들 을 십 자



가 에 못 박 았 는 데, 하 나 는 오 른 쪽 에 다 른 하 나 는 왼 쪽



에 못 박 았 다. 지 나 가 는 자 들 이 머 리 를 흔 들 며 그 분 을 이

(다른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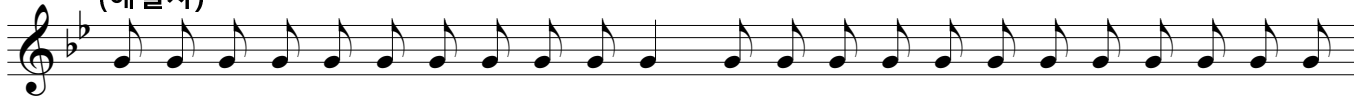


렇 게 모 독 하 였 다. ["저 런! 성 전 을 허 물 고 사 흘 안 에 다 시



짓 겠 다 더 니, 십 자 가 에 서 내 려 와 너 자 신 이 나 구 해 보 아 라."]

(해설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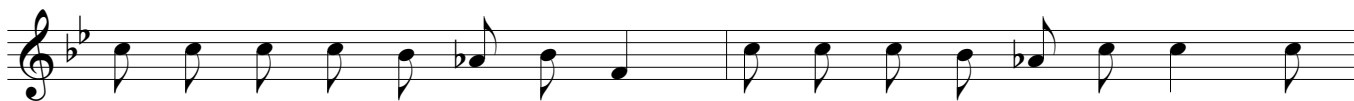


수 석 사 제 들 도 이 런 식 으 로 율 법 학 자 들 과 함 께 조 롱 하 며

(다른사람)



서 로 말 하 였 다. ["다 른 이 들 은 구 원 하 였 으 면 서 자 신 은



구 원 하 지 못 하 는 군. 우 리 가 보 고 믿 게, 이



스 라 엘 의 임 금 메 시 아 는 지 금 십 자 가 에 서 내 려 와 보 시 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그분께 비아냥거



렸 다. 낮 열두시가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세 시



까지 계속 되었다. 오후 세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



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 타니?"] 이는 번역



하면,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



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곁에서 있던 자들 가운데 몇 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였다. ["저것 봐! 엘리야를 부르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싼 포도주에 적신 다



음, 갈대에 꽂아 예수님께 마시라고 갖다대며 말하였다.



[무릎을 꿇고 잠시 묵상한다.]

